

정강선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장, 팀 코리아 선전 뒷받침

“선수 입장에서 최우선”

2024 파리올림픽

파리서 쉬 없는 일정 소화
선수 관리·불편사항 해결
경기장 돌며 선수들 응원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팀 코리아)을 이끌고 있는 정강선 선수단장(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파리 곳곳을 누비며 팀 코리아의 선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태극전사들의 사기 진작 및 컨디션 조절 등을 비롯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며 체육 위상 및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팀 코리아가 대회 초반 예상을 뛰어넘는 메달 사냥을 펼치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강선 선수단장 역시 쉬 없는 일정을 소화하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및 업무 누수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강선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장(사진 오른쪽·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과 펜싱 금메달 오상욱 선수.

지난 20일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정 단장은 선수 및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고 있다.

선수 관리를 비롯해 지속적인 선수단 회의, 불편사항 해결 등은 기본이고 각 경기장을 돌며 목청껏 선수들을 응원, 격려하고 있다.

또한 팀 코리아 파리플랫폼 오픈데이,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개회식 등을 비롯한 올림픽 공식 행사 참가를 비롯해 각 국의 선수단장들과의 만남 및 회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올림픽 기간 모든 일정을 총괄, 소화하는 정 단장은 폐회식이 끝난 뒤 8월 13일 귀국한다.

정강선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 선수단 분위기도 아주 좋다”며 “올림픽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수의 입장에서 선수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사격과 양궁, 펜싱, 유도, 탁구, 수영 등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하면서 이날 현재(7월 31일)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수확한 상태다. /뉴시스

세계적 주목 받는 ‘사격銀’ 김예지

일론 머스크 “액션영화 캐스팅해야”

X에서 지난 5월 열린 사격월드컵 세계 신기록 세운 영상 퍼져

2024 파리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1·임실군청)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예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경기에서 42점을 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현재 X에서는 당시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김예지는 검은색 모자를 뒤로 쓴 채 마지막 발을 쏘고, 차가운 표정으로 표적지를 확인한 뒤



권총 잠금장치를 확인했다.

곧이어 표적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 뒤 한숨을 내뿜고 뒤로 돌아섰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순간인데도 미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처럼 ‘여전사’ 같은 모습에 전 세계 X 이용자들은 환호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영상의 조회수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기준 2300만 회를 넘어섰다.

해당 영상은 6500회 이상 재공유됐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1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해 김예지에게 찬사를 보냈다.

머스크는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진 것 같다.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글을 적었다.

한편 김예지는 오는 8월2일 자신의 주종목인 25m 화약권총에 출전,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뉴시스

임종훈·신유빈,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銅’

홍콩에 4-0으로 완파

한국, 12년 만에 메달

임종훈과 신유빈이 12년 만에 올림픽 탁구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30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의 원준팅·두호이 켈 조를 4-0(11-5 11-7 11-7 14-12)으로 완파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12 런던 올림픽

픽 남자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메달을 거머쥐었다.

신유빈은 2008 베이징 대회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딴 당에서, 김경아, 박미영 이후 한국 여자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 주인공이 됐다.

임종훈은 8월 19일 입대 예정이었으나 이번 동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북한 리정식·김금용 조는 중국의 왕추천·쑤잉사 조와의 결승 경기에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뉴시스



동메달을 확정된 뒤 기뻐하는 신유빈과 임종훈.



일본 완파, 열싸안은 공희웅과 김소영

김소영·공희웅(사진 왼쪽, 전북은행) 조(8위)가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포트드 라사벨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 예선 C조 3차전에서 나미 마사오(마-시타 치하루 조(4위·일본)를 꺾고 환호하고 있다. 김소영·공희웅은 점선 끝에 2-0(24-22 26-24)으로 승리하고 3승을 기록하며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3일 ‘쿨벨리트레일레이스’ 개최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장수군은 오는 8월 3일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장수군 주관, 락앤런(대표 박하영) 주최로 장수트레일레이스 시즌투어2 ‘쿨벨리트레일레이스’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7km 단일 종목으로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장수의 산과 계곡, 능선을 따라 달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번 코스는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 장수종합경기장 → 동촌리고분군 → 장수 눈개활공장 → 사두봉 → 방화동 자연휴양림 → 덕산계곡 장안산 생태탐방길 → 장안산근린공원 일구 → 방화동 숲속의 집으로 진행되며 컷오프 시간은 6시간이다.

쿨벨리트레일레이스가 종료되면 골인지점인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는 ‘제2회 장수 쿨벨리페스티벌’ 축제를 다같이 즐기며 마무리한다. 축제에 준비된 다양한 장수 농특산물과 먹거리, 물놀이 등을 함께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락앤런 박하영 대표는 “시즌투어2인 ‘쿨벨리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장수트레일레이스를 더 알리고 오는 9월 28



일에 펼쳐질 ‘제4회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트레일레이스는 75%의 산림면적을 가진 우리 지역 특성을 강점으로 만들어 장수군의 유휴한 산림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수군에 특화된 스포츠이다”며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는 장수군은 친환경 경산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산림을 활용해 장수군의 레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레일러닝은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산악마라톤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트레일러닝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울산 스포츠과학 중교수영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진안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수영 선수단(16명)을 전지훈련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수영 선수단은 오전에는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수영훈련 및 기초 체력훈련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자유형 등 특화된 수영법에 대한 훈련을 진행해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울산에서 멀리 떨어진 진안까지 방문해주신 수영 선수단을 환영하며 항상 부상에 주의하여 운동하시고 다음에 또 진안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홍순무·홍용표父子 2인展

2024. 7. 17. Wed - 8. 13. Tue

Opening. 7. 20. Sat P.M. 3:00



기린미술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Tel. 063-284-0888, 매일 10:00-18:00, 월요일 휴관